

광주일보·전남대 문화예술사업단 공동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편견·차별 따가운 시선 '가시방석 학교'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및 생활고와 이들은 이주여성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2세인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밭달이 더디고 이는 기초학력 부진으로 이어진다.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 풍토 속에 또아리 툰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은 이들을 더욱 힘겹게 한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교육 부족 탓에 또래 집단의 따가운 시선과 따돌림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주여성들도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자녀 교육을 꼽고 있다. 그들의 자녀가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돋는 일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주여성들의 한국 생활 진단에 이어 (제3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실태와 교육의 문제점을 심층 점검해본다.

■ 전남지역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2006년 1월 기준, 전남도 실태조사 결과)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게 하겠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전남자사 후보가 내건 선거 공약이다. 이농과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돼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끊기지 오래인 농어촌마을을 개발하여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붕괴와 날로 저하되는 출산율은 이런 희망을 한낱 기대에 그치게 만들었다.

그러던 농촌지역에 최근 다시 우렁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들은 노인들 뿐만 시골마을에 활력과 웃음을 되찾아 주는가 하면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 직전에 놀인 농촌학교를 살려내기도 한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들이다.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5천여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말 자체 조사를 통해 3천755명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1~5세의 유아가 1천 997명(53.2%)으로 가장 많고 6~12세 1천 513명(40.3%), 13~18세 173명(4.6%), 19세 이상이 72명(1.9%)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나주시가 339명으로 최다였고 해남군 263명, 화순군 249명, 영암군 238명 등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 순천시와 여수시, 무안군과 고흥군 등도 200명을 넘어서고 나머지 시·군은 79명(구례)~190명(장흥) 사이였다.

이들의 어머니인 이주여성 3천537명의 결혼 전 국적은 중국 33.1%, 베트남 21.6%, 필리핀 21.5%, 일본 15.7% 등으로 아시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71.7%, 농업 18.3%, 식당업 1.4% 등으로 어려운 삶의 실상을 짐작케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 가운데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미 1천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에는 초등학생 997명, 중학생 80명, 고등학생 18명 등 모두 1천95명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 초등학생 189명, 중·고생 12명 등 194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초등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후반 들어 한국인 남성과 동남아 이주 여성 사이에 국제결혼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자녀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부터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인이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데다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